

# 한국콜마, 인터코스코리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1심 승소

자외선 차단제 기술 탈취 법적 분쟁  
법원, 영업비밀 폐기·2억 지급 판결  
한국콜마 “인터코스 항소시 적극 대응”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자외선차단제(선크어) 핵심 기술을 훔친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콜마의 기술을 유출한 한국콜마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 코리아에게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인터코스코리아의 항소를 예상하고 있

다”며 “30여 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크어 기술을 한 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고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술 등 50여개의 선크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자외선 전문 연구소인 ‘유브이 테크 이노베이션 연구소(UV TECH innovation R&D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콜마에 입사해 2018년에 퇴사한 A씨는 한국콜마 퇴사일주일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크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입사한 2018년부터 선크어 제품을 만들었다.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관련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무단 반출한 것이다. 같은 해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크어 제품 매출액만 약 46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약 460억원이 한국콜마의 매출이 될 수도 있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군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선크어 제품 관련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에만 선크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2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 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왼쪽)와 큐비엠 장유경 대표이사가 지난 7일 기능성 소재 제품화 관련 상생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국제약-큐비엠 기능성 소재 제품화 맞손

동국제약이 큐비엠과 기능성 소재 제품화 관련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제약기술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동국제약과 ‘해양수산부의 신기술기업 1호 국가대표 혁신기업1000’에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 큐비엠이 보유한 다수의 기능성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진출 10주년 인플릭시맙 처방 1위 ‘쾌거’

올해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 56%  
글로벌 캠페인 전개... 성과 재조명



램시마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램시마’가 9월 유럽 진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 유럽장질환학회(UEGW)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연차 투어,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램시마는 지난 2013년 9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회사측은 램시마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던 성과들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램시마는 지난 2017년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인플릭시맙 처방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램시마는 올 1분기 영국 83%, 프랑스 61%를 비롯해 유럽에서 5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를 연이어 런칭하면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제형인 램시마와는 달리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자가투여가 가능하고, 환자들의 내원 횟수가 줄어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램시마SC의 미국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측은 오는 10월 판매 허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LG생활건강, ‘멸균팩 재활용지’ 포장 확대

멸균팩 재활용 통해 자원순환 앞장



오는 10월부터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프로폴리스 치약 포장재에 멸균팩 재활용지가 사용된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연간 최대 1081톤의 종이 포장재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 LG생활건강은 한솔제지를 비롯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과 멸균팩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생활건강은 멸균팩 재활용지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멸균팩 재활용지 사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재활용된 멸균팩으로 생산한 종이를 페리오, 죽염 등 LG생활건강 치약 브랜드의 날개 상자 포장지로 활용한다. 향후 신제품 화장품 세트와 2024 설 명절 선물 세트에도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청하 수습기자

## 유한양행-플루토 ‘애니콘주’ 판매 업무협약

유한양행과 플루토가 지난 6일 반려동물 관절 건강을 위한 주사제 ‘애니콘주(AniConju)’ 판매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9월 중순경 국내 시장에 애니콘주를 출시하고, 플루토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애니콘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성분으로 구성된 동물용의료가기로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이다. 애니콘주는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 광동제약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

광동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참당귀 녹용황기 복합추출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 입증하여 제조자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로 개발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회사는 지난 7월 국내 1호로 ‘녹용당귀 등 복합추출물’의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를 받는데 이어 연달아 2호까지 획득하며, 다년간의 천연물 소재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은 활성산소감소, 무산소성 대사감소 등의 인체 기전에 영향을 주어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 미샤, 14일부터 ‘개똥썩’ 전 라인업 할인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유튜브에서 선공개한 광고 영상이 조회수를 약 439만 회 기록한 가운데 TV 광고 시작을 기념한 ‘100일 발효 급속 진정 개똥썩’ 프로모션을 마쳤다.

미샤는 이번 프로모션을 공식몰 에이블샵에서 오는 1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똥썩 전 라인을 3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청하 수습기자

개똥썩 라인이나 미샤 5대 앰플 글로벌 에디션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 시 썩향 인센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미샤는 광고 영상에 할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담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연출되거나 꾸며지는 것이 아닌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 신세계백화점, 자기관리 건강식품 라인업 확대

비타민, 수면관리 상품 등 선택

신세계백화점이 추석을 맞아 ‘셀프메디케이션족’을 위한 자기관리 건강식품을 대폭 늘렸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홍삼이나 오메가3 같은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피부 미용과 수면 관리 등 자기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상품 라인업을 대폭 늘렸다. /최빛나 기자 vitna@

우선 수면 관리 상품을 처음으로 명절 카탈로그에 담았다. 특히 인증을 받은 수면 음료 ‘슬리핑 보틀(10만원)’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명절 카탈로그에는 없었던 ‘고함량 비타민’ 카테고리도 새롭게 마련하고 선물세트 수도 전년보다 6배 늘렸다.

이러부터 상품도 준비했다. ‘에버콜라겐 코큐3 입 세트(15만9000원)’, ‘뉴트리코어 맥스 글루타치온 세트(120매·14만7000원)’ 등이다.

/최빛나 기자 vitna@